光日春秋

안도현

엄살과 투정의 시대

며칠 전 출근길에 모처럼 연탄을 싣고 가는 트럭을 보았다. 반가웠다. 연탄 실은 트럭이 마치 흑백사진 같았다. '연탄' 하면 줄줄이 떠오르는 기억이 셀 수도 없이 많은 까닭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가슴이 찡했다. 아직도 연탄으로 차가운 계절을 나야 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아직도 연탄으로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물을 데우며 겨울을 나야 하는 가구가 20만이다. 북녘에서는 겨울나기 연료로 연탄마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라고 한다. 엄살이 아니다. 나는 '연탄 한 장'이란 시를 쓴 적이 있다.

'…/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방구들 선득선득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선 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 거라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이 가을에 스스로 또 묻지 않을 수 없다. "나는 과연 누구에게 연탄 한 장인가?"

삼시 세 끼 배곯지 않고 먹고 살만 한 호시절이라는데, 한쪽에서는 영 글러먹은 세상이라고 삿대질로 세월을 다 보내고, 또 한쪽에서는 옛적보다 사는 게 수월찮다고 땅이 꺼져라 한숨만 쉬고 있다. 도처에 투정과 엄살이 넘쳐나고 있다.

경제를 탓하고 정권을 탓하지만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탓하지는 않는다. 이게 문제다. 귀성길에 고속도로가 막히면 길게 늘어선 다른 차들을 탓하지 자신의 차가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의 하나라는 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아파트 시세의 급상승을 어찌 정부의 정책 부재 탓으로만 돌리는가? 자신의 세속적 욕망이 분명히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왜 인정하지 않는가? 입으로 밥 들어가는 일도 투정 아니면 엄살이다. 잘 생각해보자.

더 맛난 것을 혀끝으로 찾으려는 욕망과 더 몸에 좋은 것을 섭취하려는 욕망의 부추김에 길들여지면서 우리는 점점 속물이 되어온 건 아닌지? 먹는 일은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도시에서 먹는 일에 한사코 목을 매달고 살지는 않았는지? 남보다 더 맛있는 것을, 더 많이 먹으려고 아등바등 살아온 것은 아닌지?

요즈음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이 심심찮게 눈에 띈다. 특정한 정치세력이 권력을 거머쥐지 못한 데서 나온 말이다. 다가오는 대선에 이겨 그 한을 풀겠다는 뜻이다. 엄살의 극치다. 이건 선술집 같은 데서 울분을 참지 못해 술상을 내리치며 내뱉어야 할 소리다. 이런 신파조의 엄살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가 없다.

그들은 10년 동안 권력을 잃었을지 몰라도 우리 국민들은 이 기간에 참으로 소중한 민주주의를 얻었다. 비로소 성취한 민주주의를 향후에 어떻게 잘 가꾸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데서 길을 찾아야 한다.

타령은 안 된다. 다시는 '겨울공화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약속도 해야 한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바로 따뜻함이다.

참여정부의 실패와 무능에 대한 지적도 엄살과 투정으로는 곤란하다. 참여정부의 실패는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따뜻함에 대한 배려의 실패이다. 객관적인 논리와 투명한 일 처리의 배면에 따뜻함은 전무했다. 여당 대선 예비후보들이 이른바 경선 흥행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아무도 따뜻하지 않은데, 누가 그들에게 마음을 주겠는가?

곧 추석이 다가온다. 고향은 따뜻한 밥의 기억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 누구도 고향에서는 투정과 엄살을 부리지 않았고,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음식을 나눠먹을 줄 알았고, 반찬을 서로 권할 줄 알았다.

명절은 그렇게 더불어 밥 먹던 사람들이 다시 모이는 시간이다. 성공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고향 쪽으로 발걸음을 옮길 것이다. 고향에서는 성공했다고 떠벌이며 자랑할 일이 아니며, 실패했다고 기죽어 고개 숙일 일도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난한 밥상 앞에서 함께 밥을 먹던 사람들이다. 올 가을엔 제발 따뜻한 일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시인·우석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사설

지방 죽이는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하라

대선을 앞두고 일부 정치권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수도권 출신 의원들은 12일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의 건교위 전체회의 심의를 추진했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보류돼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재회부됐다. 하지만, 규제 완화에 대한 수도권 의원들의 의지가 강해 이달 중 다시 상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에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안에서의 제한 완화, 학교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총량규제 완화, 공장 신·증설·이전·업종 변경 제한의 전부 또는 일부 완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배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 부지와 기존 공업지역, 낙후지역,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규제를 대폭 완화토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 규제정책은 유명무실하게 된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방 혁신도시 건설 사업이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지방기업의 수도권 이전 가속화, 지방 이전 기업의 급감 등 비수도권 경제의 공동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참여정부가 국정 주요과제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지난 4년 동안 수도권 집중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 규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인구와 기업 등의 수도권 집중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방 죽이기에 다름없다. 규제 완화는 기업은 물론 사람과 돈의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이어져 비수도권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수도권 집중은 지방 낙후를 부추기고 수도권의 삶의 질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국토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법 개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할 것이다.

대형 유통업체 지역상품 '홀대' 자성해야

광주·전남지역 백화점과 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홀대하고 있다고 한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지역 농수축산물 구입 비율이 기대치에 못미치고 있는 것이다. 지역경제활성화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전남도가 지난 3월 광주·전남지역 대형 유통업체 16개 점포를 대상으로 농수축산물 판매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역상품 비중이 3분의 1 정도에 불과했다. 추석을 앞두고 일부 백화점이 전남산 1차 상품 비중을 70%선까지 확대했다고 하지만 매우 낮은 수준이다.

농어민들이 품질좋은 상품을 생산해도 유통업체들이 구매를 기피해선 살아남기 어렵다. 지역상품이 잘 팔려야 더 좋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다. 자치단체와 농협 등이 농수산물 사주기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전남산 1차 상품의 구매 비중이 낮은 원인을 서울의 본사가 구매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부 신선식품 등은 지역에서 조달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본사가 품목별로 일괄 구입해 지방의 점포로 내려 보낸다는 것이다.

하지만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지역상품 구매율이 가장 높은 광주 신세계 이마트는 농산분야 매입 바이어 2명을 광주에 상주시키며 지난해 1차 상품 1천29억원 어치를 구입, 전국 100여개 점포에 납품했다. 전체 물량에서 지역상품의 비율을 일정 수준 보장하는 '쿼터제'도 검토할 수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광주·전남에서 영업을 하며 지역자본을 유출하면서도 지역 상품 구매를 기피해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쌀과 사과, 전복 등 지역 농수축산물 구매량을 늘려 지역사회와 상생협력의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유통업체들이 윈-윈(Win-Win) 전략을 펴길 기대한다.

정신과 의사 김홍식의 LA통신

사치는 열등감의 표시 아닌가요

심리학적으로 볼 때 자기과시나 체면 차리기는 열등감을 극복하려는 뼈아픈 노력의 산물이다. 과시를 크게 할수록 그에 비례해서 '나는 이만큼 큰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형식이다.

사치 역시 비어있는 내부를 감추기 위한 외부적 위장으로 처지에 맞지 않게 끼고 있는 보석반지가 크면 클수록 '나는 이만큼 속이 많이 비어있는 사람입니다' 라며 스스로를 광고하며 다니는 것이나 다름 아니다. 불행하게도 과시와 체면 차리기, 사치가 가장 심한 민족이 우리 한국민족인데 그만큼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는 아닐까.

미국인들은 남의 눈을 의식하지도 않고 남에게 잘 보이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다. 남이 미국국기를 불태우면서 반미를 외쳐도, 드라마에서 어느 특정지역이나 특정 직업을 비하하는 내용이 나와도 집단 항의 데모를 하는 등 과잉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런 것에 관한한 열등의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미국사회에 사치라는 것은 거의 없다. 결혼식이나 파티 같은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넥타이나 정장을 입는 사람 보기가 힘들다.

지나치게 치장하는 사람은 내부에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판단 받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큰 보석이 있다하더라도 파티에 갈 때는 일부러 수수하게 치장을 한다.

헐리우드 유명 배우들의 세계나 영화에 비친 것들을 일반적인 미국의 현상으로 보면 큰 오산이다.

값이 적당하고 편리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지 왜 '명품'이라며 제조회사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필요한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한국 관광객들이 미국 백화점의 '명품'들을 싹쓸이한다는 기사를 접할 때면 은근히 '문제'가 있는 민족임을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느껴지곤 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다.

대낮에 골프장을 매운 무리들은 어김없이 한국서 온 엄마 부대들이다. 화려한 고급 골프복을 입고 무리지어 다니는 사진이 실린 미국 언론을 볼 때면 이곳 교포들은 미국인 직장 동료들 대하기가 부끄럽다. 운동을 하는데 왜 사치스런 옷을 입어야할까.

한국에서 들렀던 백화점들은 위압감이 느껴질 정도로 휘황찬란했다. 의복들은 잘 만들어져 내가 미국서 사 입는 옷의 5배 정도 되는 비싼 가격에 팔리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일반 나들이에 왜 그런 비싼 옷을 입어야 되는지는 좀처럼 이해하지 못하겠다.

냉장고도 미국보다 2배 이상 비쌌다. 단순한 디자인에 성능이 좋으면 되겠는데 굳이 호화롭고 사치스런 디자인이 필요할까.

아파트들도 참 좋기는 한데 꼭 외국에서 수입한 자제들을 썼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얼굴이 못 생긴 열등감 때문에 정신 상담을 받았었다고 한다. 따지고 보면 이 세상사람 중 열등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다만 없는 척하고 살고 있을 뿐이다.

이제 200개 나라들 중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나라 국민이다. 더 이상 열등하지 않다. 자신감을 가질만 하다.

남의 눈을 의식하는 피곤한 과시 경쟁, 그만 좀 하면 안될까. 마음의 여유로움을 누리면서 사는 것, 그리 힘들지 않다.

눈부시게 발전한 화려함의 뒷면에 여전히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한국 방문때 목격했는데 그들을 위해 차라리 베풀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 씀씀이를 가졌으면 좋겠다.

기고

최종대

지역농협에도 펀드 판매 허용을

지역농협의 사업은 크게 신용사업, 경제사업 및 조합원 지도 사업으로 분류된다.

이중 신용사업은 지역농협 수익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기서 생기는 수익으로 경제사업과 지도사업을 실시한다. 이런 구조 탓에 신용사업이 경쟁력을 잃을 때 경제사업과 지도사업은 큰 위기에 봉착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의 경쟁력은 갈수록 무너져가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농업·농촌 경제의 피폐화가 가장 큰 원인이다. 우리 경제가 한·미 FTA 체결 등을 계기로 개방이 가속화하면서 글로벌 경제권으로 급속히 재편되는 과정에서 농업기반이 무너지고 농촌의 살림살이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금융기관간 치열한 경쟁도 신용사업에 막대한 타격을 가져다주고 있다. 상호금융으로 지역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영세한 지역농협의 경우 전국 조직을 갖추고 있는 거대은행 등 글로벌 은행과 직접 경쟁하자면 숨이 턱까지 찰 수밖에 없다.

셋째, 세제혜택 등 정부의 보호막 정책이 걷혀가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그동안 사료, 마트사업 등에 면세혜택을 부여해왔던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 조합원 예탁금과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등이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추세다.

넷째, 금융감독 규제가 강화돼 제 1금융권이 받고 있는 규제와 감독을 차별없이 받을 수 밖에 없는 점도 갈수록 신용사업을 위축시키고 있다.

넷째, 제도적·정책적 제약으로 인한 상품 경쟁력의 취약성을 들 수 있다. 펀드의 대중화 시대라고 하는 요즈음 농협에서 펀드를 팔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제도는 지역농협의 경쟁력을 크게 후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주식시장의 활황과 함께 2007년 8월말 현재 펀드 자산 잔고는 300조원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에 4천여 점포망과 2천만명의 거래고객명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농협에 펀드를 팔 수 없도록 법적인 장벽을 쳐놓고 있는 것은 큰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지역농협에 펀드 판매를 허용해야 할 당위성은 또 있다. 농업인의 상품선택권 보장이다. 시중은행이 없고 지역농협과만 거래하고 있는 농업인이 정기예금과 같은 단순한 상품만 접해야 할 이유가 없다. 당연히 농업인에게도 스스로의 리스크 판단능력이나 의사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가입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나아가 든든한 농협중앙회가 연합회 기능과 지도·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지역농협의 경우 제 1금융권 수준의 상품판매·운용능력이 얼마든지 있다. 제 1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의 상품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고객이탈을 막고, 제 1금융권과 경쟁함으로써 자생력을 길러나갈 수 있다.

이같은 상황을 종합해볼 때 지역농협의 펀드 판매허용은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정책 당국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농협광주지역본부 신용부본부장〉

無等鼓

적조(赤潮)

적조는 플랑크톤이 갑작스레 번식해 바다나 강, 호수 등의 색깔이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물이 붉게 바뀌는 경우가 많아 붉은 물이라는 의미에서 적조(赤潮)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70년대 이후부터 어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문제는 황토를 뿌리는 것 외에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황토가 적조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는 1970년대 일본과 미국에서 시작됐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황토를 대대적으로 살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최근들어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황토 살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이 황토 방제의 종주국인 셈이다.

황토 살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무한정 사용할 수 없는 유한 자원인데다 철(Fe)이나 망간(Mn)이 함유돼 있어 장기적 측면에서 오히려 적조를 유발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살포 비용이 t당 1만5천원으로 저렴한데다 대량으로 뿌릴 수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가장 유효한 방제 수단일 수밖에 없다.

최근 해양수산부가 적조 피해를 막기 위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적조가 닥치기 전 가두리 양식장에서 기르던 물고기를 놓아주자는 것이다. 물고기를 떼죽음시키느니 어민들에게 일정한 보상을 해주고 바다에 풀어줘 수산자원으로 만들자는 발상이다.

그러나 이 방법 역시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보상 액수가 적은데다 이미 적조 생물의 공격으로 질병이 발생하고 일부 기형어까지 발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고기를 방류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일고 있다.

적조를 막기 위한 근본 대책은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드는 오염물질을 줄이는 것이다. 하수처리장을 확충하고 연안 바다 밑 퇴적물 준설도 서둘러야 한다. 황사와 함께 적조도 파괴된 자연이 인간에게 되돌려주는 예증의 하나가 아닐까.

/김재열 사회2부장 ajkim@

국산 위스키 개발·전통주 육성 서둘러야

프랑스의 보졸레 누보라는 포도주를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우리나라 전통주에 대해 너무 무관심하다. 특색있는 유명한 전통주가 많이 있는데 현재는 명맥을 잇기조차 힘들 정도라고 한다.

전통주가 외국산 주류와 경쟁해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와 당국의 적극적인 육성책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전통 주류에 관한 종합적인 교육기관을 설립해 다양한 내용을 취급하고 주류 품질 향상을 위해 주류의 제조 및 관리를 담당하는 주조사를 육성해야 할 것이다.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는 위스키의 국산 제품을 개발하는 한편 탁주·약주 등 다양한 주류의 원료로 정부 재고미를 저가에 지원하는 방안마련도 필요하다.

▲최명연·광주시 서구 유촌동

개인·사찰 문화재 도난·훼손 막을 보호장치 시급

문화재라고 해서 전부다 정부가 관리하는 것만은 아니다. 개인이나 문중, 사찰 등이 소유한 문화재도 많은데 문제는 이것들 중에는 훼손 우려가 높고 절도범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이다. 더구나 비지정 문화재의 경우는 관리가 허술해 갈수록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고 있다.

국보급이나 국가 지정 문화재는 거의가 전문 기관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반면 개인과 문중이 관리하는 서원을 비롯한 재실,정자, 가옥 등 건축물은 대부분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으며 붕괴될 우려마저 있다.

개인이나 문중이 소유한 문화재는 국가나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문화재로 지정돼 있어도 소유자 관리 원칙에 따라 개인과 문중이 관리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마땅한 관리 지원이 없는 실정이다.

국가와 시·도 등에서 문화재를 지정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예술성과 학술성 등을 고려해 가치가 있거나 옛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면 마땅히 당국에서 나서서 보존 관리해 줘야 한다. 농촌에 방치돼 있는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도 도난이나 도굴, 훼손 등을 막을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지금 문화재에 대한 보호장치를 서두르지 않으면 얼마 가지못해 소중한 조상들의 유산을 볼 수 없게 될지 모른다.

▲김기수·광주시 서구 쌍촌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晧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禛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FAX	227-9500〉	〈FA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사업2부	2200-552	〈FAX	02-773-9335〉
〈FA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